KB증권

FIRST TO THE MARKET

더 많은 리포트 보기

2021년 3월 8일

중국주식 Analyst 강효주
02-6114-1688 hj_kang@kbfg.com

융기실리콘자재 급락 코멘트

단기 변동성 확대 예상,
글로벌 탄소중립 의지 강화로 장기 추천 관점 유지

융기실리콘자재, 장중 하한가 기록

— 한국시간 15:20 기준, 중국주식 포트폴리오 포함 종목 중 융기실리콘자재 하한가 기록

— 융기실리콘자재 뿐 아니라 보리협흠, 통위, 금풍과기 등 중국 태양광/풍력 관련주 모두 5% 이상의 하락세

급락 원인 ① 중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

— 지난 주 금요일 진행된 전국인민대표회의 (전인대) 정책 발표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및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,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확대

— 통상 전인대 직후 5개년 계획의 대략적인 목표를 제시할 때 향후 5년간 태양광/풍력 발전의 신규 설치 규모를 발표해왔고 이를 통해 시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. 올해 14차 5개년 계획 시행을 앞두고 태양광/풍력 발전 신규 설치 규모로 약 500~600GW의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했으나, 정부가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던 점이 우려의 주요 배경

— 더불어 지난주 중국 에너지국이 향후 태양광/풍력 발전 산업을 시장화하겠다고 밝히면서,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/풍력 부품 가격 상승 추세가 중국 전체의 재생에너지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. 두 가지가 모두 겹치면서 금일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

급락 원인 ②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 상존

— 전인대에서 정부가 부양보다는 안정화에 중심을 두었고,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성장주 위주의 매물 출회 지속 중인 점도 부정적 영향

— GDP 성장률 목표치의 경우 2021년은 지난해 낮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6% 이상으로 설정했고, 향후 5년 계획에서는 수치를 미제시. 이와 대조적으로 2021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컨센서스인 3조 위안을 상회하는 3.65조 위안으로 발표되어, 지방정부 부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판단

— 중국 통화정책이 내부 요인인 주택가격, 물가 이외에 미중간 금리차에도 영향을 받고 있어, 다음 주 미국 현지 시각 16~17일 예정된 FOMC 이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 (3/8 전인대에서 확인한 세 가지, 부양보다는 안정, 박수현/강효주).

단기 변동성 확대 불가피하나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의지 강화 고려해 장기 추천 관점 유지

— 통상 전인대 이후 1~2개월 내에 각 섹터별 세부 정책안이 발표되는데, 전인대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만큼 저탄소 발전 계획안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. 구체적인 정책 발표까지 시일이 걸리고,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가 상존해있다는 점에서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

— 다만 시장의 우려에도 2021년 중국 태양광/풍력 신규 발전 규모의 컨센서스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. 2021년 태양광 발전 약 60~70GW, 풍력 발전 약 30GW 이상 설치 예상. 더불어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탄소국경세 (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유럽/미국 수출 시 탄소국경세 과세)까지 논의 중인 상황. 전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장기 관점에서 융기실리콘자재에 대한 추천 관점 유지

투자자 고지 사항

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,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